

2월20일(월)/약3:13~17(1)

제목: 지도자의 위험

야고보는 지혜롭고 충명이 있는 자는 선한 행동으로, 그리고 겸손한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였다(13절). 여기서 지혜 있고 충명이 있는 자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킨다. 충격적인 말은 교회 지도자의 마음에도 시기심과 욕망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14절).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만큼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욕망이 자리 잡기 쉽다(14절).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기 쉽다. 특히 설교에 대해서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랑하려면 선한 행실로, 겸손한 행동으로 자랑하라고 한다(13절). 지도자는 자기의 말이 타인에게 항상 잘 경청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타인의 말을 듣기 보다는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지금 말한다. 내가 입을 열 때에는 개가 짖지 않도록 하라”는 교만을 가지기 쉽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겸손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교만하기 쉽다. 혹시 나는 많이 듣기보다 많이 말하는 자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기와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인정받기 보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2월21일(화)/약3:13~17(2)

제목: 두뇌 회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릇된 지혜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이다(15-16절). 이 지혜는 동물적인 지혜를 가리킨다.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지혜이다. 이것은 동물들의 본성이다.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은 인류의 역사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하여 물어뜯고 으르렁 거리는 지혜로 점철된 역사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나 동물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바로 이 지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고상한 지혜가 있다. 야고보는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라고 하였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이다(18절). 이 지혜는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영광을 위해서 가동되는 지혜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동한 두뇌는 생존만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혹시 그동안 나는 나의 출세, 사업, 자녀, 승진만을 위해서 두뇌를 회전시키면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

2월22일(수)/약4:1~10(1)

제목: 헛된 기도

싸움은 항상 욕심에서 비롯된다(1절). 모든 싸움의 원인 궁극적으로 욕심이며 정욕 때문이다. 이 정욕이 싸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야고보는 “언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2절)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욕심’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을 자신의 사적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까닭이다(3절). 사적인 욕망이 기도의 문을 닫게 한다. 만일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응답이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는 힘과 시간만 낭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나의 새벽 기도와 나의 철야 기도에 사적인 욕망이 깔려 있다면 새벽에 그렇게까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고 밤에 그렇게까지 늦게 안 잘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에 나가기 전에 욕망과 욕심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2월23일(목)/약4:1~10(2)

제목: 질투 많은 연인, 하나님

세상과 벗하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이며 간음하는 사람이다(4절). 야고보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과 크리스천과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5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질투하기 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연적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질투심 많은 연인이시라는 것이다. ‘질투’ 라는 말은 하나님과 결부시키기에 곤란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사랑이 깃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경쟁상대에 대하여 참지 못하시는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한 사람 밖에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헌신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배타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독점하고 우리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 속에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경쟁상대는 무엇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남편 혹은 아내인가? 연인인가? 사업인가? 우리 마음 속에 이들을 하나님의 경쟁상대로 만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2월24일(금)/약4:1~10 (3)

제목: 우십시오.

야보고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한다. 크리스천은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며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6~8절). 그리고 슬퍼하라고 한다. 애통하라고 한다. 울라고 한다. 한술 더 떠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9절)라고 한다. 야고보는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가? 크리스천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 말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다. 우울해야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라는 말이 아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아” (8절)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 충족적이며 쾌락을 애호하는 크리스천들을 말한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경건한 슬픔을 가지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마다 자기의 절망적인 모습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지난 다음 죄용서의 즐거움과 환희가 온다. 이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사람은 먼저 울어야 한다. 울어야 은혜가 찾아온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는가? 우는 정도에 따라 웃음도 찾아온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